

전 세계 11개국 청년 40명, '올바른 한국' 알린다

- 8. 6. '제21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개최
-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정보 발굴·신고, '케이-콘텐츠' 홍보 활동 등 수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운영하는 '제21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이 8월 6일(목) 오후 2시,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나선다.

'바로알림단'은 해외에서의 한국 관련 오류 정보를 발굴·신고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민간 참여단(서포터스)이다. 2013년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유연한 활동 체계를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간 단원 총 784명을 배출했다.

6월 1일부터 5주간 공모 통해 11개국 거주 청년 40명 선발,
외국 국적 단원 12명 참여, 전체의 30% 차지

'제21기 바로알림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약 5주간 진행한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수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내·외국인 40명(한국인 28명, 외국인 1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도네시아, 영국, 튀르키예 등 전 세계 11개국에 거주하는 단원 17명은 시차와 지역적 한계를 넘어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수에서는 외국인 단원 비율이 처음으로 전체의 30%를 넘어 한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바로알림단' 참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단원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친교 활동을 시작으로 활동 포부 발표, 활동 교육 등을 진행한다. 국외 거주 단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5개월간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신고 및 올바른 정보 제공에 앞장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 10주년, 더욱 풍성한 바로알림 활동 예고

‘제21기 바로알림단’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를 통해 향후 약 5개월 동안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발굴·신고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데 앞장선다. 특히 올해 9월에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 10주년을 맞이해 단원들의 생생한 활동 후기를 담은 짧은 영상 제작, 온라인 이벤트 개최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수에는 미디어 소통(커뮤니케이션), 전통 음악, 패션 등 문화·예술 각 분야에 특화된 단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체 불가능한 ‘케이-콘텐츠’만의 매력을 더욱 다채롭게 세계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국민소통실 담당자는 “올해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가 개통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전 세계 11개국에서 모인 ‘제21기 바로알림단’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히며, “문체부는 국경과 시차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에 우리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는 ‘바로알림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국민소통실 해외홍보기획과	책임자	과장	정은영 (044-203-3361)
		담당자	전문관	류서은 (044-203-3375)

